

T V

TV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밈지만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노력 했어요”

KBS 주말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 방말속 역 오연서

참 밈다. 드라마로 보는 것도 미운데 실제 이런 시누이가 있으면 얼마나 더할까. KBS 2TV 주말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 (이하 '넝쿨당')의 방말속 얘기가.

지난 6개월간 주말이면 안방극장에 찾아 온 '말속이'는 기혼녀들에게 경계의 대상이자, 전면적인 인간 개조가 필요한 '시누이'를 대표했다.

극중 방말속으로 알려진 시누이 연기를 펼치고 있는 오연서(25)는 21일 “너무 중요, 확실히 시청률이 40%를 넘어서니 길거리를 다니기가 힘들어졌어요.(웃음) 혹시나 혼내거나 때리면 어찌지 걱정했는데 그러지는 않고서도 잘 보면 다들 '말속이다!'라며 반가워하고 좋아해주세요.” 라고 환하게 웃었다.

'넝쿨당' 전까지는 무명이나 다름없었던 그는 방말속의 인기로 CF를 6편이나 찍었다. “아직 알뜰살뜰할 뿐이에요. 데뷔하자마자 이런 인기를 누렸다면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지도 모르지만 10년 고생해봐서 그런지 현재를 온전히 즐길 수만은 없네요. 이리다가 또 잊힐까 봐 두렵기도 하고, 마냥 좋아하기엔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알기에 더 잘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데뷔 만 10년을 맞았다. 2002년 중학교 3학년 때 본명인 오해림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탤런트로 활동 중인 전혜빈과 댄스그룹 LUV로 데뷔했다.

이듬해 청소년 드라마 '반올림'에서 주인공 고아라의 언니 역을 맡아 연기를 시작했고 동극대 연영과에 진학한 뒤 2009년 영화 '여고괴담'에서는 공동주연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름을, 얼굴을 알리는 데는 실패했다.

그는 “넝쿨당”을 만나지 않았다면 연기를 그만뒀을지도 모른다”며 웃었다. “올해도 안되면 진짜 그만두려 했어요. 그럴 때 이처럼 보석 같은 작품을 만났으니 너무 감사하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보라는 하늘의 뜻이 아닐까 싶어요.(웃음)”

오연서는 지난해 말 '넝쿨당'의 시놉시스를 접하자마자 ‘말속이는 내가 꼭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워낙 스펙타클하고 강한 캐릭터이다 보니 사실은 연기하기가 힘들어요. 밈지만 미워 보이지 않게,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수위도 조절해야 하고요. 게다가 까마득한 대선배인 김남주 선배님을 상대로 온갖 심한 말을 내뱉어야 하니 에너지가 보통 많이 든 게 아니었어요. 김남주 선배님이 너무 잘 받아 주셔서 자신감 있게 더 강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땀 우리 톨 다 연기하다 너무 열이 받아서 실제로 혈압이 상승하기도 했어요.(웃음)”

하지만 실제로 말속이 같은 시누이를 만나는 상황은 “절대 싫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3일(음 7월 6일 丙寅)

Table of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卯, etc.) including age and fortune predictions.

EBS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time slots and program titles.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three columns: 'I don't want to be a crasher', '名落孙山 míng luò Sunshan', and '韓國人だというのが誇らしいです'. Includes Korean text, English translations, and Japanese text.